

자급조사료의 생산은 토지확보와 경신, 비배관리, 예취조제, 운반, 저장, 인출급여 등 다양한 작업과정과 기계화 및 시설투자, 그리고 엄청난 노동시간 등이 투입되는 것으로 『**대규모화 또는 협동화 집단생산 체제의 확립없이는 경제성 있는 생산이 불가능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조사료 중에서 가장 생산성과 이용성이 높은 옥수수 사일리지는 모든 생산조건을 완비한 대규모 기업 낙농가들이(수분 75% 저장기준) kg당 50원 내외로 생산하는 반면, 90%에 달하는 중소낙농가들의 경우는 100원 내외로 생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옥수수 사일리지 생산비가 kg당 100원(수분 75%) 정도 소요된다면(건물가격으로 kg당 400원) 수입조사료 이용(他給)이 유리한 반면에 50원 정도로 생산할 수 있을 때에는 자급(自給) 생산이 유리한 것이다.

참고로 수입 조사료의(농장도) 가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1. 알팔파 건초(상급품 C.P. 19%, R.F.V. 160)
→ 300~330원 /kg당
2. 알팔파 건초(하급품 C.P. 15%, R.F.V. 140)
→ 280~300원 /kg당
3. 알팔파 큐브(C.P. 14%)
→ 230원 /kg 당(이상 자유 유통품)
4. 수단그라스 건초(C.P. 9%, TDN 60%, R.F.V. 87)
→ 280~300원 /kg당
5. 버뮤다그라스 건초(C.P. 9%, TDN 67% R.F.V. 88)
→ 260~280원 /kg당(수입제한품)

자급조사료와 수입조사료의 가격과 가치를 비교해 보면 대형목장의 조사료 생산(옥수수 사일리지 : 건물(D.M.) 200원 /kg)은 비교우위에 있고 중소규모 목장의 생산(400원)은 수입조사료 보다도 비교하위에 있음을 알게 된다.

따라서 오늘의 자급조사료 생산이용은 『**대규모 형태의 다량생산만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질적평가나 이용성에 있어서는 심도있는 비교

고찰이 필요함)

대 책

토지이용형 농업으로 육성한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국토보존 및 관리차원의 정책산업으로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면 마땅히 정부의 획기적인 조사료생산 지원책이 어떤 농업분야의 지원보다도 우선 순위로 강구되어야 한다.

대형기계화로 생산이 가능한 광대한 집약단위 경작지를 정부가 낙농육우 집단지 곳곳에 300만평 단위 이상으로 구입조성한 후 낙농가들이 협동생산체 하든가 또는 위탁재배 생산자로 하여금 유통, 판매토록 하는 등의 지원방법이 필요하다. 구입한 토지는 국유화 하여 정지한 후 무상임대나 장기불입 판매제도 등을 수립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과감하게 시행하는 것이 낙농육우산업의 생명인 조사료 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료작물(조사료)의 생산은 쌀이나 다른 어떤 곡물의 생산보다도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훨씬 비교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연구, 확인함으로써 비전(Vision) 있는 국가적 정책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W.T.O 제도하의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농업에서는 『**농지정책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쌀의 생산을 위한 앞으로 농지확대나 경지정리 투자는 마땅히 조사료(사료작물) 생산투자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근대화과 낙농경영의 필수적 원자재인 조사료는 그 이용의 지혜를 보다 과학적이고 폭넓게 터득케 하는 “자유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조사료의 질을 평가 이용하는 지혜의 터득은 곡물사료의 과용을 줄이면서도 낙농경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낙농가들이 『**한정된 노동시간을 경제성도 없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너무 많이 허비**』하고 그 결과 젖소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하게 전업화 및 다두화로만 낙농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극히 불합리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조사료대책이 없는 낙농합리화 정책은 헛되고 헛**

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국제 경쟁력 있는 21세기 지향의 자주적 낙농창조를 추구하는 국가차원의 가치 『자급조사료 생산대책 연구위원회』의 설치를 제창하는 바이다. 정(政), 산(産), 학(學), 연(研) 등의 중지를 모아서 낙농의 생명을 이어 나가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맺는 말

21세기 한국낙농의 생산성도 노동종사자 1인당 우유의 생산량으로 결정 지어지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노동종사자 1인당 몇 두를 사육하느냐?” 보다 “얼마나 우유를 생산하느냐?”의 관점에서 경영을 평가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이다.

미국낙농의 경우는 노동종사자 1인당 산유량 300~700톤/년(1인당 평균착유두수: 40~100두) E.U(구라파 제국)는 노동종사자 1인당 산유량 200~300톤/년(1인당 평균 착유두수: 30두~40두) 정도이며 일본은 노동종사자 1인당 산유량 200~400톤/년(1인당 평균착유두수: 30두~50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미래의 국제경쟁력 점검을 위해서도 **우리의 현실을 산출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추산으로는 **노동종사자 1인당 100~200톤/년**(1인당 평균 착유두수 15두~30두) 우유 생산에 불과한 실정이다.

낙농근대화인 1인당 우유생산량 증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조사료 생산부문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극도로 줄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젖소의 능력개량에 힘쓰면 젖소의 관리에 전문성을 추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21세기에는 자급조사료의 생산 및 판매유통을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을 정부투자로써 과감하게 구현하는 것이 낙농이 살아남는 길인 것이다. 낙농단체나 지도자들은 보다 안정된 미래의 경영과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중지를 모아서 강력하게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믿어진다.

낙농은 고도의 첨단산업으로 발전하면서 우유를 생산하는 공장같이 변화하며 사양관리의 과학화 및 자동화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이다.

W.T.O 하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도 **구태의연한 농업의식으로 안주하기를 바라는 낙농경영방식으로는 더이상 낙농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리고 항상!



협회사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십시오!

☎ (02) 588-7055~6

양집!

알 팔 파!

알 팔 파!

알 팔 파!